

조계종 31대 총무원장 취임, 북한산 관동도로 및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문제 등 굵직한 사안들이 많았던 올 한 해는 성과도 많았지만 적지 않은 과제도 남겼다. 특히 올해 반드시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를 넘기게 되는 과제들은 내년에도 불교계 발전과 위상 확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일산 불교병원 개원 문제를 포함한 동국대 위상, 북한산 관동도로 등을 둘러싼 환경 문제, 조계 대교 천대 진각종 등 주요 종단들의 이해결 정책을 우선 해결 과제로 진단하고 세 차례에 걸쳐 종합 분석한다.

해넘기는 과제들 ①

동국대 100년 대계는 있는가

글 쓰는 순서

- ① 동국대 100년 대계는 있는가
-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 ③ 각 종단의 주요정책

학교 · 재단 · 종단 ‘마이웨이’



◇홍기삼 총장의 2006년 3월 개원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준공식까지 미친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은 여전히 인가에 싸여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원키로 했던 것이 2년 이상 늦춰지는 셈이다. 도대체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불교계 관계자들은 병원 개원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를 학교와 재단, 그리고 조계종간의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병원장 인선과 의료진 총원,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의 문제들부터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 재단 이사회의 전임 송석구 총장 간의 불협화음은 물론이고, 이런 과정에서 불교병원장으로 내정됐던 하권의 교수가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학교 재단은 실질적인 지원은 뒷전에 둔 채 학교의 무능력만을 탓하고 있고, 학교 측은 자구책을 찾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기에 조계종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병원 개원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3자 모두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으니 개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6월에는 당초 내린 봄 개원을 예정으로 불교병원 정관개정을 추진했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되면서 무위에 그쳤다. 당시 이사회가 의도적으로 정관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병원장 인선과 병원 직제 등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병원 개원 문제가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재단이 500여원의 부채까지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에 필요한 1000여 원의 자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100여 원 정도에 불과하다. 자금조성을 위해 학교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종단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단 이사장 정대 스님이 최근 입적하면서 후임자 인선을 놓고 조계종의 중시세력들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홍총장의 2006년 개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에 따라 병원 개원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일산 병원 개원 문제는 학교와 재단, 조계종단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지 않는 한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인 셈이다.

● 흔들리는 불교대학

불교대학은 학부제가 되면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과(轉科)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과 존폐 위기가 제기됐고, 급기야 올해에는 선학과 지원자가 단 1명에 불과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아직까지도 불교학부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또다시 '제2의 선학과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토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6월에는 학교가 보직교수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비불교도를 임명해 지탄을 받았으며,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부총장의 '신의 은총'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22명의 불교대학 교수들이 학교당국의 자성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히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은 종립학교로서의 동국대 위상을 추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과거 불교학부 교수 채용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의 '자기 제자 챙기기', 학교와 재단 고위 관계자들의 '자기 사람 심기' 등의 논란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투명 인사 시스템이 하루 속히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 건학이념을 되찾자

오국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일류동국 도약을 위한 포럼'에서 '70년대 횡행했던 낙하산식 인사와 그로 인한 리더십 부재, 그리고 불교의 전법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동국대인문학 회장)는 "동국대학교의 자신은 불교 종립대학이라는 것과 1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불교계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한 마디로 '건학이념을 되찾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바로 종립학교로서의 위상 강화와 불교대학의 특성화에 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재단과 종단의 화합이 필수적이다.

이 건학이념에 비추보면 동국대가 얼마나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학교와 재단, 조계종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학교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지적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

불교계의 지속적이고도 과감한 투자, 교육과정 체계 정비, 연구개발 및 학풍 쇄신, 종단과 재단과의 명확한 관계설정, 대내외적인 재정확보 노력 없이 동국대가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길 기대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멸발'에 지나지 않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 일산병원 **원장선임 · 직제근거 마련 못해 장기 표류**
- 불교대학 **학부제 이후 전과 희망자 늘어 존폐 위기**
- 인사난맥 **자기사람 심기 · 보직교수 비불자들 임명**

● 추락하고 있는 동국대 위상

동국대는 중앙일보 2003년 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5단계 하락한 30위를 기록했다. 연극 영화 관련 학과가 2위에 든 것을 빼고는 20위에 든 학과가 없다. 게다가 '개선도' 종합 순위에서는 아예 3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당초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기로 했던 동대 일산 불교병원 개원이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면서 이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원칙 없는 교수임용은 인사 때마다 무성한 뒷말만을 남겼다.

뿐만 아니다. 선학과가 존폐위기에 몰리는 등 불교학의 메카라는 말은 옛 말이 되

고 있고, 재정은 바닥상태다. 게다가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학교와의 관계가 모호해지면서 급기야는 종단의 정치 구도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 신세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국대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 일산병원 개원 지연 무엇이 문제인가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2005년 3월에 일산 병원 개원을 목표로 개원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연내 개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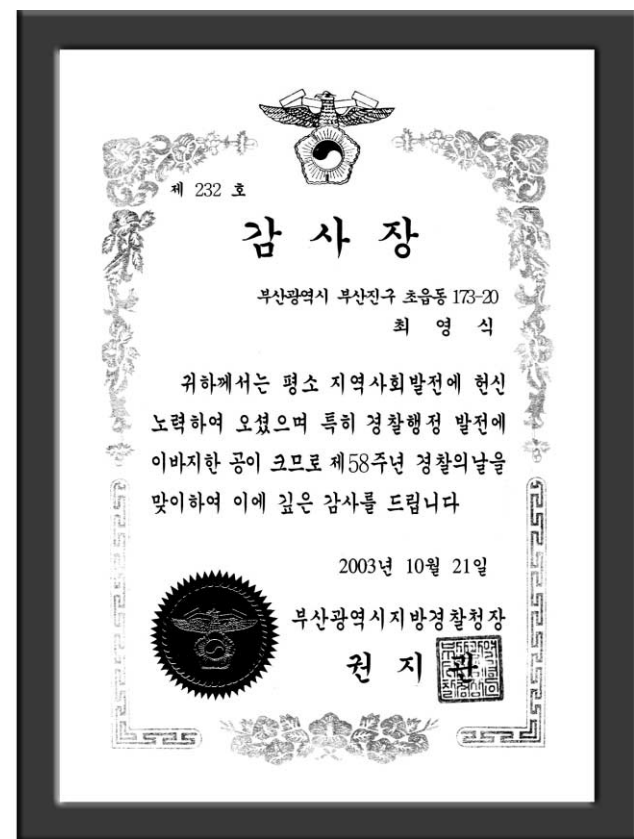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목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목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12월 둘째주, 셋째주 (월~금)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5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수련으로 수많은 강력사건유괴살해,강도,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 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